

올해 출판계 날씨 '구름 잔뜩, 햇살 한줌'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문화의 세기 준비

유례없는 고통을 겪은
출판계가 새해를 맞는
결의는 어느때보다 단단하다.
아직도 난제가 쌓인
유통문제 등 음울한 기운이
떠도는 가운데, 본격 기획물로
승부를 걸고 유통 현대화·
정보화를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한줄기 햇살처럼
비추고 있다.

기묘년의 출판계는 구름이 잔뜩 낀 형국이다. 최근 "국내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기대적인 전망도 나왔지만, 호황에 둔감하고 불황에 민감한 출판계는 암운을 탈출할 수 있는 별다른 호재가 없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동안 출판계는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한줌 햇살을 찾아 떠돌 공산이 크다. 그러나 불황타개를 위한 기획물이 나오고, 도매상 연쇄부도와 같은 악재가 더이상 없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조금씩 풀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더불어 다가올 문화의 세기를 준비하는 출판계의 움직임이 배가되는 한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출판사 어려움 지속될 것

지난 한해 동안 유례없는 고통을 겪은 출판사들의 표정은 아직 굳어 있다. 경기침체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독자의 구매욕이 계속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로서는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올 상반기에 대기업 및 정부출자기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출판계는 한껏 움츠러들 전망이다. "경기침체 분위기를 극복하기 힘든 한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 지식산업사 김경희 대표는 "상반기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화 함에 따라 인문·사회·문예분야의 출판이 위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바꿔 말하면 실용서와 에세이류가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학습지·교재 등 학습관련 출판의 위축도

감지된다. 교보문고 위성계 대리는 "수능시험이 쉽게 출제되는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학습지 출간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재류는 대대적인 복제본 유통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전자출판물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것 역시 복제본 유통이 풀어야 할 숙제다. 따라서 학술서 출판도 그 영향권을 비껴나갈 수 없다.

한편, 출판사들이 어렵게 98년을 지내며 암암리에 준비한 참신한 기획물이 서서히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분석도 있다. 젊은 출판인 모임 '책을 만드는 사람들'(회장 최청수) 회원들은 "몸을 낮추고 있던 출판사마다 지난해에 출판하지 못한 기획물을 펴낼 움직임이 보인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출간에 돌입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과다출판을 지양하고, 다품종 소량출판을 지향할 것이라는 데도 의견이 일치된다. 도매상 연쇄부도와 같은 악재가 더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니 하반기부터 서서히 풀릴 것이라는 희망도 비쳤다. 한편, 출판시장 개방과 환율 인하로 번역서 출간이 소폭이나마 증가될 조짐도 보인다.

유통망 현대화·전산화 구축 시급

유통업계의 앞날은 밝지 못하다. 부도사태 이후 다소 진정 국면에 돌입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난제가 곳곳에 포진해 있다. 먼저 업계가 다시 과당체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단행본을 취급하는 업계는 대체로 한국출판유

통·송인서림·학원서적 등으로 재편되는 듯했다. 그러나 고려북스(주)가 동국출판판매(주)로 상호를 바꿔 영업을 재개했고, (주)세종출판유통이 보문당을 인수해 업계에 뛰어들 것을 선언했다. 한 출판사 대표는 "부도난 도매상마다 속속 복귀를 선언하고 있어 유통업계가 과당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했다.

출판계의 숙원사업인 유통업 현대화와 전산화에 대한 짐도 무겁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나춘호 회장은 "출판계 가장 큰 문제인 유통업의 현대화와 전산화를 위해 도서유통개선포럼위원회를 구성"할 뜻을 밝히고, "서점과 도매상, 출판사가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되는 밴(VAN) 망을 구축할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이 올해 안에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일단 (주)한국출판유통과 한국출판협동조합에 정부의 지원자금 150억원이 수혈됐지만, 구체적인 사업성과가 있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외국업체의 유통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에 새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대다수 업계 관계자는 이들이 직접 유통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예측에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국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합작 및 기술 제휴를 요청해 오면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냉혹한 국제 경쟁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전략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속제로 등장한 것이다.

물류센터 기능의 강화로 유통흐름에 변화

〈謹賀新年〉

아름답고 뜻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9년 새해 아침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朴忠一
전무이사 吳世益

〈謹賀新年〉

지난 한해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제책업체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99년 새해 아침

대한제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전덕수
전무이사 유원준

〈謹賀新年〉

희망찬 새해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며,
불황타개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1999년 새해 아침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羅春浩
사무국장 鄭鍾眞

출판물류 원스톱 서비스 시작

국내 최대 규모 파주출판물류(주) 준공



지난 12월 16일 준공식을 가진 파주출판물류(주).

국내 최대 규모의 출판물류회사인 파주출판물류주식회사(대표 조노현)가 지난 12월 16일 준공식을 가졌다. '물류센터'는 도서유통회사 날개와 고려문화사·김영사·박우사·사계절·서지원·폴빛·홍익미디어 등이 13억을 출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47억원의 자금협조를 받아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에 대지 5,475평, 건평 2,800평 규모로 세워졌다. 현재의 시설로 5백여 출판사의 도서 1천만권을 수용할 수 있다.

원스톱 물류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재고도서 유통사업·금융업을 통한 출판지원사업·연관사업지원·출판정보 제공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금 50억원 출판지원 대상 결정

정부의 긴급 지원금 200억원 가운데 양서출판 지원자금으로 활용하는 50억원에 대해 249개사에 49억4천2백만원을 용자키로 결정했다. '출협'은 지난 12월 28일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선정했다. 지원금은 출판사당 2천만원 내에서 2

년 거지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6%에용자받게 된다.

세종출판유통 출범

(주)세종출판유통(위원장 김종진)이 12월 8일 프라자호텔에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세종출판유통'은 지배주주인 이두호 율곡학원 이사장이 출자할 20억원과 대주주들의 투자자분금 30억원을 기반으로 추가출자 등을 통해 총자산 200억원을 마련, 보문당을 인수할 예정이다.

독서대상 시상

독서재물결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12월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5회 독서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대통령상에 광주 조영식 교사, 국무총리상에 부광초등 이은선 교사, 교육부장관상은 광문고 차주원 군 등이 받았다. 문화부장관상은 덕원여고 유화영 양, 특별상(출협회장상)은 대구 비봉초등 이주남 교장 등이 수상했으며, 금성출판문화재단이사장상은 창동초등 조사무엘 군 등이 받았다.

대한민국 출판문화대상 시상

문화관광부는 '제8회 대한민국 출판문화대상'에 《토끼》의 작가 백성민, '우수만화 제작지원'은 재능출판(대표 박성훈) 등 5개 출판사를 선정했다.

가 있으리란 견해도 있다. 문화유통특수 이영복 상무는 "출판계를 추락시킬 요인이 많이 줄었다. 그만큼 출판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고, 상반기 이후부터는 좋아질 것"으로 낙관했다. 원스톱 물류를 지향하는 (주)파주출판물류의 탄생이 출판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출판시장 15~20% 위축 전망

출판시장 전체 규모는 15~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예측한다. 출판시장 규모를 유추할 수 있는 서점업계의 상황이 그런 예측을 가능케 한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이창연 회장은 "올해 안에 중·소형 서점 1,500곳 정도가 폐업할 것이다. 대단히 비관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교보문고와 영풍문고는 올해의 매출 성장률을 5.3~5% 늘려 잡았다. 이러한 수치는 도서 제작비 자연 상승률을 감안하면 작년 대비 매출 신장의 확대를 계상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지방서점의 폐업 속출에 따른 반사이익을 감안하면 사실상 성장률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중·소형 서점 폐업과 출판계 불황이 길어질 경우에는 틈새시장을 노린 할인판매가 성행할 전망이다. 지난 연말 재경부는 "학습참고서·잡지·취미서적은 서점에서 가격을 결정해 판매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해 다시 한번 정가제 유지 논쟁에 불을 댕겼다. '출협'은 "도서정가제를 확고히 유지해 도서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을 올해의 주요 과제로 선포했다. 그러나 한 출판사 영

업부장은 "정가제가 사실상 훼손된 상태인데다가 벌써부터 3월 대란설이 나돌고 있다. 올해도 정가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형 시설 유통업체의 할인판매도 계속될 전망이다.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공공단체 등의 도서관업비 축소도 불황의 요인으로 꼽힌다. 대학가에 나돌 복제본도 출판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다. 반면, 환율인하에 따른 외서 수입 규모는 적게나마 증가할 것이다. 교보문고 외서계 박동수 과장은 "작년에 부득불 들어오지 못한 책과 환율인하에 따른 수입이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 업체의 움직임에 따른 수입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출판인 다수는 이런저런 전망을 내놓은 끝에 "다가올 문화의 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출판인들 스스로 태도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식산업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구호를 실천과제로 바꾸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결의다. 한국출판연구소 윤청광 이사장은 "정부가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책을 확립하도록 출판계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출판인들은 침체 속에서도 새로운 문화의 세기를 준비하는 범출판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한해가 되길 출판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 오완진 기자

〈謹賀新年〉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신속·적극적인 조정으로
저작권 질서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1999년 새해 아침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전영동

〈謹賀新年〉

출판도시 건설로
위대한 책의 시대를
열어 갑시다

1999년 새해 아침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상무이사 유도열

〈謹賀新年〉

철저한 내용심사로
우수한 학습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9년 새해 아침

학습자료협회 회장 李元熙
사무국장 金光浩